



“소개합니다”

우리 땅의 씨앗으로 숲을 채우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글·사진_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생태복원실 제공

산림생태복원 전문기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기후재난과 각종 개발로 산림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훼손된 자연을 건강한 모습으로 되살리는 ‘생태복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산림복원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땅이 본래 가지고 있던 생태적 균형과 생물다양성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비롯하여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등 각 권역별 생태복원 수행을 위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6월호에서 소개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훼손지 주변에서 찾아낸 우리 식물의 힘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핵심은 ‘권역 맞춤형 생태복원’에 있습니다. 산림 훼손지가 발생하면 공급센터는 해당 지역의 주변 산림에서 오랜 세월 그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응해 온 자생식물의 종자를 직접 수집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종자는 공급센터의 전문 인프라와 기술을 통해 증식·재배하고, 건강한 복원용 식물소재로 생산하여 다시 훼손지 복원에 활용합니다. 훼손지의 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생식물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식물의 안정적인 활착을 돕고, 훼손된 숲이 본래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산림복원 현장에서는 사업에 활용할 식물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외래종이나 해외에서 수입한 식물소재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식물소재의 사용은 지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입 과정에서 유해 생물이나 외래종이 유입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유전적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산림에서 수집한 우리 식물로 산림훼손지의 복원까지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는 우리 산림에서 직접 수집하고 증식한 자생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해외 수입 소재를 점차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산림생태계가 지닌 고유한 유전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역 환경에 적합한 산림복원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 자생식물 증식·재배 연구 모습

해외 수입 소재 대체와 유전다양성 보전

그동안 국내 산림복원 현장에서는 사업에 활용할 식물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외래종이나 해외에서 수입한 식물소재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식물소재의 사용은 지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입 과정에서 유해 생물이나 외래종이 유입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유전적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는 우리 산림에서 직접 수집하고 증식한 자생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해외 수입 소재를 점차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산림생태계가 지닌 고유한 유전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역 환경에 적합한 산림복원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숲을 지키는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산림생태복원 지원 과정은 우리 숲의 유전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복원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복원이 필요한 산림 훼손지 인근의 건강한 숲에서 오랜 세월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응해 온 자생식물의 종자를 수집합니다.

확보된 종자는 정선과 활력검사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안전하게 저장되며, 이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전문 인프라와 증식기술을 통해 척박한 훼손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건강한 복원용 식물소재로

생산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고품질의 자생식물 소재는 국가 산림복원 현장에 공급되어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소재로 사용됩니다. 결국 우리 땅에서 수집한 씨앗이 다시 우리 숲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 산림의 유전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역 환경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산림복원을 실현하는 기반이 됩니다.

지속가능한 산림복원 경영 구축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는 온대 중·북부권역의 생태복원 소재 공급을 위한 거점으로서, 고품질 종자의 수집·저장·관리부터 표준화된 증식·재배 기술 연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발적인 복원에 그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복원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씨앗으로 우리 숲을 복원하는 일은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앞으로도 유전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복원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우리 산림생태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기반이 되겠습니다.

자생식물 복원소재 종자수집



복원소재 묘목 생산 현장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 건강한 복원소재의 생산 모습